

고성경찰서 종합성과평가 도내 1위

112신고 만족도·체감안전도 좋은 성과 거둬



고성경찰서(서장 이용완, 사진)가 강원지방경찰청이 주관한 2011년도 강원지역 경찰종합성과 평가에서 도내 1위를 차지했다.

올해 부녀자 납치 강도사건 및 살인사건을 해결하는 등 큰 성과를 거둔 고성경찰서는 주민친화적 치안서비스로 감동치안을 현실화시켜 112신고 만족도, 체감안전도 등에서 좋은 성과를 거둔 것이 인정됐다.

고성경찰서 관계자는 “이번 성과에 안주하지 않고 앞으로 여성, 아동, 장애우 등 사회적 약자보호에 정성을 다하고, 주민 공감치안을 적극 추진해 주민에게 인정받는 고성경찰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최광호 기자

바르게살기협의회 김장만들어 주기



바르게살기운동 고성군협의회(회장 정문식)는 2011년 불우이웃돕기 김장담그기 행사를 지난 29일 고성군 여성회관에서 가졌다.

이날 비가오는 곳은 날씨속에서도 회원 50여명이 참석해 절인 배추를 양념 포장해 600포기의 김장을 정성껏 만들었다. 이날 만든 김장은 5개읍면의 소외된 이웃에게 전달된다. 원광연 기자

속초해경 510호함 전국 1위 선정



속초해경 510호함 승조원들이 화이팅을 외치고 있다.

속초해양경찰서(서장 김홍희)는 소속 경비함정인 510함(500톤급, 함장 경감 박기찬)이 해양경찰청이 주관한 2011년도 우수함정 선발전결과 훈련부분 전국 1위를 차지했다.

우수함정 평가는 해양경찰청이 전국 15개 해양경찰서에 소속된 220여척의 경비함정을 대상으로 평가되며, 510함 4명에게 해양경찰청장 표창이 주어질 예정이다.

510함은 이에앞서 지난 9월 동해지방해양경찰청 및 해양경찰청 훈련단 주관 해상종합훈련 등 함정훈련분야와 해상치안실적분야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특히 승조원의 완벽한 팀워크와 각종 상황 대처능력, 함정 정비상태 평가에서도 뛰어난 점수를 받아 1위를 차지했다.

510함 박기찬 함장은 “경쟁이 치열한 가운데 해양경찰 경비함정의 주요업무가 집약되는 우수함정 평가에서 1위를 차지해 가슴 뿌듯하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교육훈련과 완벽한 해상치안활동을 펼쳐 안전한 동해바다를 만드는데 앞장서겠다”고 했다. 원광연 기자

‘부당청구 장기요양기관 신고포상금 제도’

부당청구 방지 큰 기여

건강보험공단, 공익신고자 30명에게 8,134만원 지급

‘부당청구 장기요양기관 신고포상금 제도’가 허위 또는 부당하게 청구한 장기요양급여를 환수하고 부당청구를 사전에 예방하는데 큰 기여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난달 열린 2011년도 제3차 장기요양포상심의회에서 장기요양급여비용을 부당하게 청구했다고 신고한 내부종사자와 수급자 가족 등 30명에게 8,134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신고자 1인당 평균 포상금은 271만원이다.

이번 결정은 공단에 접수된 부당청구 신고건에 대해 보건복지부와 자치단체 및 공단이 공동으로 장기요양기관을 현지조사해 총 11억 4,318만원의 부당청구 금액을 적발한데 따른 것으로, 공익신고제도가 장기요양의 재정보호에 크게 기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번 신고건의 심의 결과 최고 포상액은 1년 이상 요양보호사를 1인에서 3인까지 더 많이 배치한 것으로 허위 청구하고 추가 가산금

까지 받아 낸 00요양원에 대한 신고건이었다. 공단은 1억1,500만원을 부당금액으로 환수결정했으며, 신고인에게는 포상금 1,276만원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전체 부당청구 유형별로는 △시설별 필요인력을 배치하지 않고 청구한 인력배치기준 위반이 35.4% △1인이 목욕을 제공하고도 2인이 행한 것으로 청구하는 등 급여비용 산정기준 위반이 24.6% △서비스 일수 및 시간을 실제보다 부풀려 청구한 경우가 15.4% △서비스를 제공하지도 않고 허위로 청구한 경우가 12.3% △그 외 정원초과 운영 등 부당청구 건이 12.3%로 나타났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속초지사 노인장기요양보험 고성운영센터 최병열 센터장은 “허위 또는 부당하게 청구하는 장기요양기관에 대한 신고가 국민의 혈세로 운영되는 장기요양급여의 건전성을 높이는 데 큰 기여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우리 지역에서도 허위 또는 부당 청구가 있을 경우 지역 중

사자 및 수급자, 주민들이 적극 신고해 주기 바란다”고 했다.

한편 고성운영센터에 따르면 고성지역의 장기요양급여 대상자는 17개 사회시설과 개인 등을 합쳐 모두 390여명이며, 현재까지 허위 또는 부당 청구 사례는 발견되지 않았다. 최광호 기자

부당청구 장기요양기관 신고포상금제도

장기요양기관에 종사하는 자 또는 종사하였던 재(이하 종사자), 수급자 및 그 가족, 일반인이 장기요양기관의 허위·부당청구 행위를 신고할 경우 확인을 거쳐 부당금액을 기준으로 포상금을 산정해 지급하는 제도를 말한다.

△종사자가 신고한 경우는 부당금액을 기준으로 10%~30%까지의 금액을 최고 2,000만원 범위 내에서 지급 △수급자 및 그 가족이 신고한 경우는 부당금액을 기준으로 40%까지의 금액을 최고 500만원 범위 내에서 지급 △일반인이 신고한 경우는 부당금액을 기준으로 10%~20%까지의 금액을 최고 100만원 범위 내에서 지급한다.

전차대대 병사·장교 부인 김장 봉사

‘고성유심복지원’ 원생들 위해 ... 도원1리 부녀회 배추 지원

고성군 토성면 도원리에 주둔하고 있는 육군 제22사단 전차대대 병사들과 장교 부인들이 지역에 새로 들어서는 장애인 생활시설 원생들이 먹을 김장김치를 장만해줘 훈훈함을 전하고 있다.

전차대대 병사 10명과 장교 부인 8명은 지난달 28일 도원1리 마을창고에서 연말 개원을 목표로 공사가 한창인 ‘고성유심복지원’에서 생활하게 될 30명의 시설 장애인들이 먹을 김장을 담갔다.

이날 김장에 이용한 배추는 도원1리 부녀회에서 해양심층수 절임배추 사업을 위해 심은 것을 제공했다. 병사들은 밤에서 배추를 캐내 절인 뒤 씻어내고 양념을 버무려 마을 저운저 창고에 보관하기까지 모든 과정을 작전하듯이 일사천리로 진행했다.

이날 김장 담그기 봉사활동



전차대대 병사와 장교 부인들이 ‘고성유심복지원’에서 생활하게 될 30명의 시설 장애인들이 먹을 김장을 담가주고 있다. (사진 : 원광연 기자)

에 참가한 박성룡 하사(24세)는 “그동안 어머니께서 담가 주신 김치를 먹기만 했는데, 이렇게 직접 담가보니 고향에 계신 어머니의 마음을 알 것 같다”며 “앞으로도 지역에 우리의 손길이 필요하면 언제든지 달려오겠다”고 말했다.

고성유심복지원 김유심 원장(44세)은 “연말 장애인 생활시

설 개관을 앞두고 김치를 마련하는 게 큰 걱정이었는데, 이렇게 군부대 병사들과 장교 부인들이 김장 담그기를 도와줘 감사드린다”며 “앞으로 시설에서 생활할 원생들에게 이들의 정성 어린 사랑의 마음을 전해, 보다 맛있게 먹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최광호 기자